

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면?

이하준

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사랑한다면 저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성경을 읽고,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고, 모두를 사랑하니까요.

우리 가족은 언제나 남을 도우려 해요. 한번은 교회에서 지나가던 목사님 하고 전도사님이 큰 박스를 들고 가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도와 주려고 했어요, 그런데 목사님이 아니라고,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도와주겠다면서 같이 도와줬어요. 전도사님이 무척 고마워하셨어요.

놀이터에서 제가 제 친구를 도와준적도 있어요. 친구가 다쳐서 팔에서 피가 났어요. 그래서 저는 누구 도와 줄 사람이 있나 찾아보자 했는데 저희 엄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불러 소독약, 붕대, 그리고 테이프를 달라고 했어요. 제가 제 친구 팔의 소독약을 뿌리고, 붕대를 감고, 테이프를 감았어요. 제 친구가 고맙다고 했어요.

저는 저희 아빠가 찬양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걸 봤어요. 찬양을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같았어요. 저도 나중에 커서 아빠 처럼 멋있게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.

우리 가정이 더 착하고 화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살아가면 더 멋진 가정,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로를 존경하고, 사랑하고, 싸우지 않고, 모두 다 짜증내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가족 모두 다 멋있고 사랑스러

운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.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
좋겠어요.